

공무원불자회 링 린포체 초청

과천조사 공무원불자연합회는 11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링 린포체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링 린포체 스님은 "일체중생이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공무원불자들이 링 린포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금강회 무사고 안전운행 기원

조계종사 경산조계장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3일 회사내 금강원에서 차량안전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운전자들의 무사고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회원차량과 회사 업무차량 50여대에 대한 축원도 진행됐다. 지도법사 증익스님이 축원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불자회 법웅스님 초청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8일 서울 강남 봉은사 선불당에서 법웅스님(법암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참선수행을 주제로 설해진 법웅스님의 법문은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www.buddhatax.com)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정구정 회장(왼쪽) 등 회원들이 법웅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참선회 정일스님 친견법회

경찰총 참선회(선원장 자유)는 10일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을 친견하고 법문을 청해 들었다. 20여명이 동참한 이날 정일스님은 "물집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는 회두를 내렸다. 사진은 정일스님(앞줄 가운데)이 신스님을 모시고 기념 촬영한 모습.



“모든 정부부처 불자회 결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이남기 고문

“과전에 입주해 있는 모든 정부부처의 불자회가 연내에 창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직능 단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이남기(공정거래위원회장 59) 사저 고문은 정부부처 불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불자회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불자회 창립과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당시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 고문은 “최근 공무원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부부처가 있다”며 “불자들을 결속시키는데 후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자결속에 후원 아끼지 않을터”

매일 아침예불·108배 생활화
틈나면 법화경 사경...마음 추스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10년이 넘도록 취임 전 관세음보살보문공경을 독송하고 매일 아침예불과 108배 올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는 법화경 사경을 통해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단정화 한다. 어

려움에 부딪칠 때는 조용히 금강경 4구절을 영송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참구한다. 어떤 때는 하루에 1백번 이상 영송할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고위 공직자라는 자리가 그만큼 힘이 때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는 최근 모친의 49재를 청하스님(성곡사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집전으로 북한산 승가사에서 치렀다. 이를 계기로 청하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승가사 신도들이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도봉산 관문사를 찾아오는 바람에 승가사와 광문사 간 교류의 큰 물줄기가 트였다고 한 불자가 전했다.

이남기 고문의 가정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다. 부인 이정희 여사는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강남 봉은사를 찾아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어두운 새벽시간에도 불구하고 30여분 거리인 봉은사까지 매일 걸어서 왕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여사는 일주일을 들어와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어두운 새벽시간에도 불구하고 30여분 거리인 봉은사까지 매일 걸어서 왕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여사는 일주일을 들어와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어두운 새벽시간에도 불구하고 30여분 거리인 봉은사까지 매일 걸어서 왕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여사는 일주일을 들어와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erk@buddhapa.com

우리 모임에선

서울도시철도 법우회 사찰순례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3일 서울 종로 조계사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순례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재 관람과 사찰예절에 대한 강연이 마련된다. 법우회는 매일 지하철역 인근의 사찰을 순례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SBS·MBC 불자회 연합법회

SBS 법우회(회장 허원재)와 MBC 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는 21일 정오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방송사 불자회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다.

서초반야회 법현스님 초청법회

서초반야회(회장 김동진)는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성사에서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삼법인과 사법인을 주제로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대우기계·KAI 법우회 금강경 강독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우회(회장 곽자식)는 26일 오후 5시 30분 창원 성주사 법전실에서 원공스님을 초청, 금강경 강독회를 갖는다.

철불협 전법팀 발대식
팀장에 이경재씨 선임



철도단체불교협회의회(회장 정종진)는 9일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전법팀을 발족하고 팀장에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이경재 씨를 선임했다.

전법팀은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위 사무소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단체의 법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철도청내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전법팀을 구성하는 포교위원은 소속 종단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4월과 5월 간담회를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 개최해 창립가능단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지역관리역 법우회를 5월까지 창립하기로 했다.

금주의 법회

- 20일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2시 서울 구로동 관음포교원 △중앙병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 21일 △국회 경각회 불교신도회=낮 12시 봉천내 정각선원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왕십리역 역우교양실 △SBS △보훈병원 모운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병원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2시 부산 승광사
 - 22일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찬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 24일 △금융단체불교연합회 성지순례=영주 부석사 회방사
 - 25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26일 △한전 삼천포화력 보림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고성 운흥사 △국립재활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병원법당
- 법회안내=(02)722-4162-3

단체 활성화 ‘꿈틀’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의 창립기념일이 3월에 유난히 많다. 3월에 창립기념법을 봉행하는 직장 직능 단체들이 모임활성화를 위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한국석불선양회와 한빛은행 불자회, 제천불교산악회, 대한중성초경 석불회 등 단체들이 모임의 특성에 맞는 기념행사를 마련, 회원 확대와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0일 경기도 시흥 소재산 마애보살입상을 찾아 석불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석불에 담겨진 원력을 되새기고 불교적 신앙의 귀의처로의 회복”을 발

석불선양회 부산·대구지부 설립

원했다. 이 자리에서 석불선양회는 하반기중 부산, 대구 등 2개 지역의 지부를 설립하고 재가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종교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등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 직장 직능 단체들의 사찰순례 법회를 석불친견 법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직장 직능 단체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빛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16일 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회원들의 소속감 강화 등 모임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빛은행 불자회는 5-7명의 회원들로 지역별, 직급별 소모임을 운영하고 회원들의 직장내 포교활동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직장직능 단체들이 모임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석불선양회는 10일 소재산마애불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한빛은행 불자회 소모임 활성화

이날 취임한 정진호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유도해 불자회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제천불교산악회(회장 이명호)는 17일 제천 금성면 동산에서 산상법회를 열고 회원 확대와 불교산악회간 연대활동 강화 등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9일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 대한중성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회원들의 3세대 근무 회원들간 친목활동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전체 회원이 동참하는 사찰순례와 대구지역 신행단체와의 교류 등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중국 관정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우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제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술원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늘 · 중풍 · 상풍연화

아미타불의 부축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데-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02722-0292~3

부다의마을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도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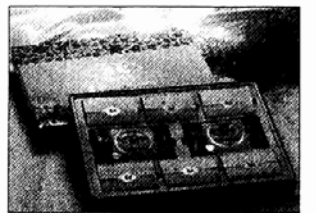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인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받는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보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체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타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배꼽 신권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두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리릴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당되는 증상에 ()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능력이 고됨을 당한다